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26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	답 당 자	• 매개체감염병과장 • 담당자	김정희 ☎440-5441 조아름 ☎440-5445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 발견...바이러스는 '미검출'

- 강화군과 중구 일원에서 지난해보다 2주 빨리 발견돼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강화군(선원면 금월리, 삼산면 석모리)과 중구(오성산)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됐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된 시기는 7월 3주차(7.15.~7.21.)로 지난해 8월 1주차(7.31.~8.6.)보다 2주가량 이른 시기이다.

채집된 모기의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감염병 전파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고, 지난 25일에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경보 발령

기준**이상 채집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기준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 연도 최초 채집 시

** 일본뇌염 경보 발령 기준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개체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 이상일 때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2021년 23명, 2022년 11명, 2023년 17명으로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인천에서는 지난해 1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됐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된다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포함해 인천 지역 모기 발생 밀도를 감시하는 모기밀도조사와 실시간 모기발생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을 중심으로 해외유입 모기를 감시하는 공항 주변 해외 유입 모기감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역 내 모기 발생과 병원체 보유 조사로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매개체 감염병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며, “다만 모기매개 감염병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므로,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한다” 고 말했다.

<붙임 1.> 작은빨간집모기 사진



출처: 질병관리청

<붙임 2.> 모기채집기(유문등) 설치 사진



<붙임 3.> 일본뇌염 예방 수칙

붙임

일본뇌염 예방 수칙

<일본뇌염 예방 수칙>

- 매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6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하기
-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색 긴 옷을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리기
- 가정 내 방충망을 정비하고,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장 사용하기
-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기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0. 1. 1.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하기